도내 일반고 선발고사 2018년 폐지

도교육청, 교육부 계획 따라… 특성화고 소질·적성 고려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확대도

에너지 독립학교 협약 전주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5일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조봉업 부시장과 전주동북초등학교 교장, 전주대성초등학교 교장, 전주아이리더유치원 원장, 전주코끼리유치원 원장,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에너지진단컨설턴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전주에너지독립학교 협약식'을 가졌다.

도내 일반고 입학 선발고사가 오는 2018년이면 국내 최초로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특성화고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 중심이 아닌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성적을 종합해 학생을 선발하는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25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북을 포함한 경북, 충남, 울산, 제주 등 5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일반고 입학선발고사를 폐지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은 2018년, 울산·제주 지역은 2019년까지 일반고 입학 선발고사를 폐지할 예정이다.

나머지 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협의키로 했다.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시행 효과를 높이려면 고교 학생 선발제도 또한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판단한 것이 선발고사 폐지의 주된 이유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 선발 방식도 내신 성적 중심에서 소질·적성 중심으로 바뀐다.

서류와 면접을 통해 소질과 적성, 취업 의지를 보고 학생을 뽑는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이 확대된다.

이 전형은 올해 24%에서 2022년까지 50%로 확대된다.

그동안 특성화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했고 이 과정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주로 뽑히면서 소질과 적성이 맞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설립 취지가 흐려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교육부는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소질·적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은 1단계 내신성적과 출결, 2단계 1단계 성적과 면접 점수를 합쳐 최종 합격자를 가려낸다"면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면접과정에서 자유학기제 활동 기록 활용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청국장 유산균 제품 기술이전 계약

'제너럴네이처', 'J-프로바이오틱스 청플러스' 5년간 독점판매 · 기술료 지급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개발한 청국장 유산균 제품의 유통판매에 따른 수익 지급을 조건으로 한 기술이전 독점권 계약을 맺는다.

연구원이 자체 기술개발한 제품의 판매수익 일부를 지급받는, 러닝개런티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07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전주시는 25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이사장인 조봉업 부시장과 관내 농식품기업인 제너럴네이처(주) 백진수 대표, 유강열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국장 분말을 활용해 만든 유산균 제품인 'J-프로바이오틱스 청(淸)플러스'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기술이전협약은 지난해 8월(농) 순창장류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으로, 5년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전용실시 계약이다.

이에 따라 제너럴네이처측은 앞으로 5년간 'J-프로바이오틱스 청(淸)플러스' 유통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되며, 수익 중 기술료로 책정된 금액은 해마다 연구원에 지급하게 된다.

'J-프로바이오틱스'는 국내 장류시장의 독보적 우위를 점하는 순창 청국장을 이용해 만들어낸 유산균 제품으로 체내 흡수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중 캡슐화 기술이 적용된 고기능성 제품이다.

제품은 특히 비만예방과 장기능 개선, 아토피 증상에 효능이 뛰어난 청국장 분말과 락토바실리스 등 5종 유산균을 다량 함유한 복합유산균 제품으로 개발됐다.

현재 전주시 기업인 ㈜케비젠이 제조 중인 이 제품은 앞으로 제너럴네이처가 유통판매에 적극 나섬에 따라 제품의 우수성은 물론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너럴네이처는 'J-프로바이오틱스'를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 해외수출 판로개척에 물꼬를 터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봉업 부시장은 "이번 기술이전을 계기로 지역기업의 매출증대와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고부가가치 제품기술 개발과 기술이전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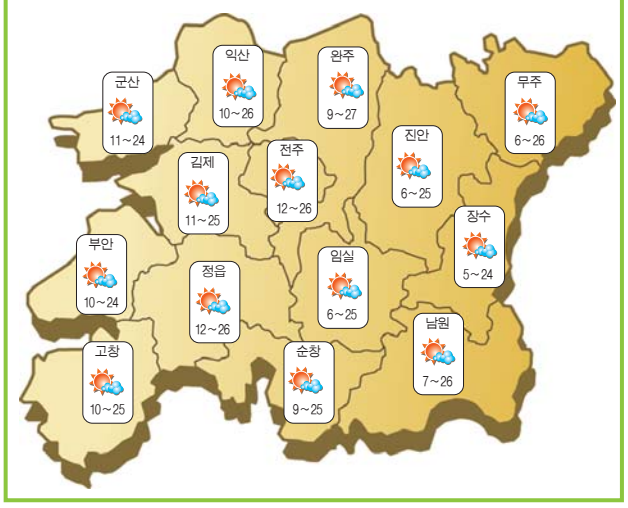
한편 연구원은 지난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전북도·전주시·순창군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토종 발효미생물 활용 항당료/항고지혈 기능성 제품 개발' 연구를 진행, 청국장에 함유된 균주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김영재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4월 26일 화요일 해뜸 05:45 | 해짐 19:14 달뜸 22:45 | 달짐 08:28

날씨 최저기온 5~12도 최고기온 24~27도



이리고 출신 서울대 황준석 군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발돼

장학퀴즈 상금 등 일부 연탄은행 기부 '모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황준석 군이 2016년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됐다.

이번 대통령 과학장학금은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6개 분야(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정보)의 120명과 해외장학생 10명, 지역균형선발 17명 등 총 147명을 선발했다.

선발 학생은 대학교 4년 동안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50만원의 학업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황 군의 장학생 선발은 지원요건 및 선발절차가 까다롭고 지난 3년 동안 수혜자의 90%가 과학고 출신이어서 일반고 출신 학생 선발로서 갖는 의미가 크다.

한편 황 군은 이리고등학교 재학 중 EBS장학퀴즈 5연승 챔피언, 2014 대한민국인재상수상, 한국과학창의재단 STEAM R&E연구 활동, 국립과학관 부스운영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받은 상금의 일부를 연탄은행에 기부(4회 300만원)하는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모범을 보이고 있다. /고민형 기자

원광대, '구인 구직 만남의 날' 내일 개최

원광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학생지원관 1층에서 '전라북도 대표기업과 함께하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최하고, 원광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T&G, 다산기공, 대경산전, 원진알미늄 등 도내 10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원광대 재학생과 졸업생뿐만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에게도 다양한 면접 기회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참가자들은 강소 중소기업의 현장 면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직업선호도 검사를 비롯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부대서비스도 참여할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